‘심화’를 다스리는 길

〈心火〉

현불논단



준한 스님
서울 홍대선원 주지

히말라야 포카라, 해발 1400m. 그곳에 작은 법당을 세우고 약사여래부처님과 미륵보살님을 모셨다. 시작은 하나의 발원이었다. “부처님 태어나신 땅, 그 길을 다시 잇자.” 윤지웅 홍대선원 청년대표와 2700여 년 전 싯다르타 태자가 걸었던 길 위에 순례자들을 위한 베이스캠프를 세우고 잊힌 순례길을 다시 열자고 다짐했다. 그것은 현대인들이 걸을 수 있는 ‘깨어 있음의 길’을 만드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우려가 앞섰다. 그러나 발원에 공감한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백 명이 넘는 이들이 모였다. 우리는 원정대를 이루고 히말라야로 향했다. 누군가는 직접 산을 올랐고, 누군가는 뒤에서 지원했으며, 누군가는 기도로 함께했다. 그렇게 하나의 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힘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그 여정에서 잊을 수 없는 인연이 있다. 홍대선원 청년 스텝, 서보우. 미국 유타대학교에서 영화학을 전공하던 그는 히말라야 프로젝트를 기록하기 위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이 여정에 합류했다. 젊은 시선으로 이 길을 기록해 세상에 전하겠다는 마음이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의 아버지인 서칠교 작가의 작업실이 화재로 전소됐다는 것이다. 우리가 히말라야로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막연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작품은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인연 맞물린 히말라야 순례길 프로젝트
화마 피한 서칠교 작가 불상 봉안한 뒤
‘심화’ 알아채고 다스리는 수행 되새겨

부처님 한 분과 보살님 한 분은 남았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두 분. 순간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쳤다. ‘두 분을 히말라야에 모시자.’

6개월 동안 2000여 명의 제자와 인연들이 마음을 모은 덕분에 마침내 히말라야 임시 법당에 두 분을 모시게 됐다. 그날 나는 다시 한번 느꼈다. 이 길은 개인의 의지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맞물려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올해는 유난히 ‘불’의 기운이 강하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는 곳곳에서 체감하고 있다. 자연의 재난, 사회의 갈등, 사람 사이의 분노. 바깥의 불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불이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집착, 욕망, 두려움. 바로 ‘심화(心火)’다.

화마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불을 피하는 것도, 없애는 것도 아닌, 다스리는 것이다. 밖의 불은 완전히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안의 불은 다스릴 수 있다. 심화를 다스리는 힘. 그것이야말로 수행의 핵심이며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힘이다.

히말라야에 모신 약사여래 부처님과 미륵보살님은 화마를 통과한 존재다. 불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드러난 존재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불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은 작은 불씨처럼 마음속에 쌓인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닌 ‘깨어 있음’이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힘. 불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불을 이겨낸 부처님 앞에서 나는 조용히 발원했다. “올해는 마음 다스리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나는 불교강사, 질문을 받습니다

세간과 출세간



이미령
칼럼니스트

불교 입문자를 위한 기본교육 강의 때의 일이다.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강의를 2회 하게 됐다. 그런데 룸비니 동산에서의 탄생에 앞서 반드시 짚어주는 내용이 있었다. 불교에는 많은 부처님이 있는데, 그중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가야 할 부처님은 역사상 실제로 살다 가신 석가모니라는 설명이었다. 그렇게 운을 떼고 설명을 막 시작하려는데 한 수강생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저기요, 부처님이 진짜로 살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질문을 받은 나는 뜨악하고 살짝 불쾌해졌다고 고백한다. 어떤 질문도 환영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내 강의실에는 이따금 너무 엉뚱한 걸 묻는 이가 있고 심지어는 선문답을 하자는 이도 있었기에, 이 질문도 그런 것일까 하여 잠깐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다. 내 표정을 읽었는지 그 수강생이 화급하게 말했다. “나는 부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부처님 일생을 설명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그의 솔직한 궁금증을 마주하자니 처음 품었던 불쾌감이 부끄러워졌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불교는 너무나 익숙한 종교로, 불교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아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이가 태반이다.

절은 조용한 곳이고 49재를 지내는 곳이며 사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냐” 초심자 질문
불교 인생 바꿀 첫 궁금증, 내 화두 돼
입문자 삶 변화 이끌기 위해 열심 다짐

시사철 사진 찍기 좋은 곳일 뿐, 아니 그나마 요즘은 하나가 더 추가됐으니 템플스테이를 하는 곳이라는 점 말고,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 머릿속에 불교는 또 무엇으로 자리하고 있을까.

골목마다 ‘만(卍)’ 자가 눈에 띄니 그건 점치는 곳이고, 보살이란 말은 점치는 사람이나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붙는 호칭이다. 절은 오래전부터 어머니가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조용히 다녀오곤 했던 곳이니 그 그리움으로 찾을 뿐,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존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서 몇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그 거리감이 너무나 크다.

석가모니라는 분이 인도에서 태어나서 실제로 살다 가신 분이라 해도 그 정도의 정보에서만 대부분은 멈춘다. 그런데 불교를 알고 싶고, 제대로 된 불자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겠노라 마음을 낸 그 입문자는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던 것이다. 정말로 그런 분이 살다 가셨느냐고.

어찌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지만, 그는 불교에 대해 첫 궁금증을 스스로 일으킨 것이었다. 나는 이 질문으로 그의 불교 인생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부처님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고 행복을 안겨주는 이가 된 것일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 이후 내게 그 질문은 화두가 되었다. 불교 강의하는 자리에는 틀림없이 그 수강생 같은 이들이 많이 있으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들에게 첫 번째 궁금증을 일으키는 데에 마음을 쓰겠노라 다짐한다. 행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함부로 말을 쏟아내 입문자를 더 당혹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

社說

종교의 이름으로 헌법 가치 훼손 말아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심상치 않다. 가톨릭이 주관하는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공교육 시설과 교육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조례안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과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이라는 근본 가치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

세계청년대회는 명칭과 달리 특정 종교가 주관하는 국제 행사다. 교황이 주재하는 미사와 신앙 프로그램이 핵심인 가톨릭의 종교 행사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가 교육청과 함께 조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시설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까지 제도화하려는 것은 공공 영역과 종교 영역의 경계를 흐리는 위험한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 행사에 교육예산·시설 지원 추진
‘간접 선교’ 논란…공교육 중립성 우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공교육 자원의 동원이다. 조례안은 서울시 1200여 개 학교의 체육관 등 시설을 숙박과 행사 운영 공간으로 활용하고, 급식·위생시설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를 사실상 종교 행사 지원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공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방학 기간이라 해도 돌봄과 자율학습 등 교육 활동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하다. 특히 학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까지 검토되고 있는 점은 교육재정의 종교 행사 전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은 공공성과 중립성을 근간으로 한다. 특정 종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행사에 학생들이 노출되는 상황은 교육 환경의 공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종교가 없는 학생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 위축감과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점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공교육 현장에서의 ‘간접적 선교 효과’도 엄연한 문제다.

절차적 정당성 역시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말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기반을 마련해 왔고, 국회에서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자 조례 제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

물론 세계청년대회가 대규모 국제행사로 도시 위상 제고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 효과가 헌법적 가치와 공교육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의 이익은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 위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조례안 심의에 앞서 공교육의 본질과 헌법적 가치를 다시금 성찰해야 한다. 교육청 역시 교육의 중립성과 학생 보호라는 책무를 최우선에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국제 행사 지원이라는 명분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공공성과 중립성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4월 22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4월 2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4월 2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